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263-275  
<https://doi.org/10.29212/mh.2022..124.2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조선과 명은 임진전쟁을 함께 극복했는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 지음),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

金康植\*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가 2022년에 발간한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임진전쟁을 군사역사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조선중기 한중관계사를 정리·평가하고, 새롭게 전개될 주변국과의 군사관계에 대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 1. 조선중기의 조명 관계를 담다

### 가. 내용 소개

올해는 임진전쟁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다.<sup>1)</sup> 이를 기념하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임진왜란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 한국은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중

고 기억하는 여러 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 사이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로 시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3국인 조선, 명, 일본이 두 축으로 나누어 싸운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대립의 한 축인 조선과 일본 관련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조선과 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이기 때문에<sup>2)</sup> 더욱 주목받을 만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형식상 상권과 하권으로 분권되어 있지만, 상권이 445쪽, 하권이 780쪽으로 각각 끝나고 있어서 사실상 한 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분량으로는 쉽게 내놓기 어려운 대작이다. 물론 서론과 결론도 있으며, 부록으로는 한중일 군사관계연표와 참고문헌이 붙어 있다.

한편 이 책은 이미 2017년 저자가 펴낸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에 연이은 연구서인데, 차후에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도 조만간 세상에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설정한 조선중기는 언제를 말하는가. 저자는 조선시대를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구분하였는데, 건국에서 연산군대까지 14세기 말~15세기는 조선과 명이 건국되고 급변하는 원명 교체기의 국제정세에서 대내

국에서는 壬辰倭禍, 萬曆遠征, 援朝抗倭, 萬曆東援之役, 萬曆朝鮮役, 萬曆日本役이라 부르면서 조선을 원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高麗陣, 朝鮮陣, 豊太合朝鮮役, 朝鮮征伐, 文祿·慶長の 役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이 국제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진전쟁으로 사용하였다.

2) 조선과 명의 군사와 외교 관계를 다룬 연구 가운데서 대표적인 저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20;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18;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1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한규,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1999.

외적으로 군사와 정치의 다양한 충돌, 통합과 정립의 역사이자 시대로 보고 조선초기라고 구분하였다. 반면에 본서에서 다루는 조선중기는 16세기~17세기 초의 중종대에서 광해군 초반까지로 설정했다. 엄밀하게는 임진왜란과 그 전후 여파가 미치는 시기까지를 조선중기로 설정하였다.<sup>3)</sup> 그래서 비평자는 이 시기를 임진전쟁으로 묶어서 사용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여섯 장의 목차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권

- 제1장 명 중심 국제질서의 동요와 국제정세
- 제2장 변화와 갈등의 16세기 한중 군사관계
- 제3장 임진왜란의 배경과 한중 군사관계
- 제4장 임진왜란과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

#### 하권

- 제5장 임진왜란의 전개와 명군의 참전
- 제6장 충돌과 모색의 16~17세기 한중 군사관계

책의 목차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 책은 저자가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를 전쟁, 군사제도, 군례, 군사외교, 군율, 군역체계, 무기체계, 군사문헌 등 다양한 군사 분야를 통해서 정리를 시도한 결과물을 세상에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6장 체제이다. 각 장의 내용은 저자가 제시한 군사사를 넘어서 군사관계사라는 시각

---

3) 조선시대의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사회성격과 관련해서는 중세사회와 근세사회로 보는 입장이 있다. 조선시대 자체의 변화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 있다(김성우, 「사회경제사의 측면에서 본 朝鮮 中期」 『大丘史學』 46, 대구사학회, 1993). 이 밖에도 정치사에서는 봉당 정치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하기도 한다.

에서 정리되어 있다. 우선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의 제1장에서는 임진전쟁 이전의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상황을 정리하였다. 16세기 명 중심 국제질서가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국제정세 변화를 군사 측면에서 다루었다. 명의 전통적인 군사제도와 군사환경, 명의 군사지휘체계 특징을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체제에서 찾고, 명의 국방체계를 수도방어 중심과 변방방어 중심으로 살펴봤다. 단지 이러한 체제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긴급한 군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세 및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 환경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선의 군사상황 변화를 중종대부터 선조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 첫 반정反正으로 기록되는 중종반정을 통한 조선과 명 사이의 반정 승인, 중종 책봉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군사관계를 정리했는데, 승습承襲 외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명종과 선조 초반까지 조선의 정세변화와 여진의 흥기에 따른 조선의 대명 군사외교를 살펴보고, 선조의 즉위 이후 최대 난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해결하여 정통성을 확립하려던 선조의 통치구상과 조명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진왜란의 배경과 한중 군사관계사를 다루고 있다. 임진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였던 군량 수송 및 조달에 주목하고, 임진전쟁 직전까지 조선의 국방정책 변화와 전쟁 대비를 살피고 있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선의 군사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전쟁 과정과 전황을 부산진전투 등 주요 사례로 들어 개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국왕 선조의 전쟁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임진전쟁 발발 이후 조선의 대명 군사외교 전개 과정과 명

의 대응을 정리하고 있다.

하권의 제5장에서는 임진전쟁이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의 대명 군사관계에서 핵심내용이라 할 명군의 참전 배경, 정책 결정 과정, 파병 과정, 전황 변화, 파병 지휘체계, 명의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명군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황제의 군대로서 군사력을 보존하여 승리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명의 군사적 의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임진전쟁 당시 참전을 결정하게 된 주요 군사적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임진전쟁 이후 조명 군사관계를 다루고 있다. 조일 국교재개로 인한 조선의 대명 외교체계 변화를 사행使行的 변화과정 중심으로 정리하고, 전후 조선의 전쟁 기억을 최현崔暉의 『조천일록朝天日錄』을 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주목하여 밝힌 내용은 임진전쟁이라는 동북아의 국제전쟁을 중심에 두고, 전쟁을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조망해 낸 것이다. 즉 임진전쟁이라는 전쟁의 배경으로 전쟁 이전 상황을 조선과 명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쟁의 전개로 전쟁의 발발에서 전황의 전개, 명군의 참전, 조명 연합, 전쟁기간의 군사외교를 정리하고, 전쟁의 결과로 조명 군사관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히 임진전쟁 시기의 한중 군사관계사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 나. 연구 시각

임진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전쟁이었다.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이 전개되자 조선에 일본뿐만 아니라 사대외교의 종주국 명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

라 국가 사이에는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이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 대작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저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관계사라는 종합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임진전쟁 연구에서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일한 시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직접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군사관계사라는 새로운 범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군사관계사가 전쟁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에 전쟁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군사관계사는 군사 관계 전반에 관련된 역사라고 규정하고 본 연구를 풀어나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군사관계사를 전쟁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외교, 군사의례, 무기체계, 전략과 전술, 병법서의 영향, 군제의 변화, 국방정책 등으로 확대하여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서 국가의 대외관계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군사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이 명과 대외관계를 맺은 목표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쟁으로 조선이 어려움에 놓이자 황제국 명의 참전은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참전이라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많은 문제를 군사관계사의 시각에서 짚어내려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역사 연구의 실용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한국 근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조선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역사 경험을 공유한 시대였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주목한 연구성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한편으로 지금 한국이 처한 시대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대중국 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시의성과 교훈성을 모두 갖고 있다.

역사 속에서 대중국 관계가 안정된 시기가 언제였던가. 저자는

조선시대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조선은 원·명 교체기에 친명 정책을 통해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형성했다. 한마디로 명을 중심으로 한 계서적階序的인 관계였다. 계서적인 조명 관계는 명의 다양한 정치적·외교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은 시대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명의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명 관계를 실용적으로 전개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이 위기에 빠진 임진전쟁 때 명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종주국이자 황제국인 명은 조선의 전장터에 직접 나와 위엄을 보여야 했다. 그것은 바로 참전(參戰)이었다. 참전하는 명의 군대는 당연히 조선의 군권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된 군사외례 등을 주목하여 살피고자 했다. 아울러 명나라의 행정조직, 군사제도, 군사계급과 직책, 군사체계를 구체화시켜서 소개하면서 도표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전쟁에서 발생하는 군수 문제를 주목하여 전쟁사의 시각을 넓히고 있다. 임진전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타국의 군대가 조선의 영토에 오랜 기간 주둔한 점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사실 조선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명나라 군대의 장기간 국내 진주를 경험하였다. 외국 군대의 국내 진입이란 상황은 내정간섭을 받으면서 주둔국 명군의 군수 지원체계를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사실 운송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의 전쟁에서 군수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 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임진전쟁 때 명의 만력제萬曆帝는 칙서를 통해 명군의 동원과 군량에 관련된 모든 전쟁 비용을 황제의 군대가 맡는다고 천명했지만, 참전한 명군은 현실적인 군량 문제에 직면하자 철저히 조선에 군량 조달을 전가시키고 외교적·군사적 압력까지 가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황제 군대

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였지만, 조선은 군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명의 자체 조달과 조선의 지원 과정으로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점은 군수 문제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 2. 임진전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다

이제 임진전쟁 연구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저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보충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방향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입장에서 비평자의 입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것은 임진전쟁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 개인의 공통된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임진전쟁 같은 국제전쟁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융합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 나라의 군역체계를 이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향촌사회의 신분제적 갈등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임진전쟁 때 각국의 병력 동원이 결국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는 군사 동원 체계뿐만 아니라 군수체계, 군량체계 등 전쟁사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통합적 시각의 연구는 전쟁사, 전투사 측면에서도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전근대 동아시아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임진전쟁은 단순 전쟁사가 아닌 정치외교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진전쟁은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경계인으로 존재하던 일본이 전국통일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개인적 요인, 감함무역勘合貿易의 필요성, 통일과정의 군사적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으킨 국제전쟁이었다. 때문에 임진왜란을 국제전쟁으로서 접근할 필요성 및 대외 관계사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임진전쟁 전후의 왜구의 활동과 변화,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의 아시아 진출과 활동이 더해져야만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의 발발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명나라 군사에 포함되었던 다양한 군사의 존재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전쟁에 명의 참전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군사의례 문제이다. 조선시대에 조선과 명의 의제儀制는 빈국례賓國禮에 해당하지만, 빈국례에 규정된 의제가 없을 때는 왕국례王國禮를 준용했다. 평상시와 달리 전쟁 시기에 명군이 파견되자 명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례가 시행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명군 지휘관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의례는 빈례이자 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었다면, 전쟁 중의 단순한 사신 접대를 넘어서 외교관계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조선과 명의 실체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전쟁사와 의병사의 한계를 넘어 국제관계 속에서 임진전쟁을 조망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사 중심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진전쟁은 조선, 명, 일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벌어진 역사사건이었다. 이처럼 임진전쟁은 관계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재되므로 일국사와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임진전쟁은 국제전쟁이었기 때문에 참전국 명나라의 정치제도, 군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저자의 연구로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임진전쟁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상대방 국가의 사료에 대한 세밀한 번역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더욱 의미 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청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야만 자국사와 민족사의 입장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학계의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경향을 소개한 의미도 크다. 이 부분은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아서 국내에 중국의 임진전쟁 연구경향이 제대로 소개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가 1950~60년대, 1970~8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진전쟁에 대한 중국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경향은 전쟁 원인, 진행과정과 주요 전투연구, 인물 연구, 명군 파병의 배경과 원인 및 활동, 역할에 대한 평가, 명 주도로 진행된 강화교섭, 파병의 결과로 재조지는再造之恩 문제와 전후처리 문제, 요동과 계주 등지의 전쟁 영향, 봉공封貢 외교 및 명과 일본 사이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전쟁의 세부사항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내 연구자의 노력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비평자의 입장에서 이 책에서 느끼는 부족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이 부분은 필자가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 본다.

먼저 군사관계사라는 용어와 연구 범위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관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저자가 말한 임진전쟁 연구에서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일한 시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한 점을 전제한다면, 군사관계사는 군사와 외교사를 합하여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군사관계사는 군사외교, 군사의례, 무기 체계, 전략과 전술, 병법서의 영향, 군제의 변화, 국방정책 등이다. 더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군사관계사는 군사사 문제에 전쟁 수행과 연관된 직접적인 외교 문제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군사와 외교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책을 서술했다면 독자들이 쉽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각 시기 안에서도 군사제도, 전투, 군수 등의 주제별로 묶어서 시대별로 서술했다면 흐름과 이해에 한층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임진전쟁을 전쟁사라는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책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는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전쟁사, 특히 군사관계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에 동원된 시기별 조선과 명군의 전체 군사수, 이에 따른 무기와 군량의 수 등이 총론 형식으로라도 서술되었다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군사수 등을 정확하게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연구를 검토해서라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전투 수행에 대한 서술 부분은 다소 일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비평자의 욕심인지 몰라도, 저자가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려고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특정한 의병장의 활동 중심의 서술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조선에서 있었던 임진전쟁 전체 전투사라는 시각의 서술이 전체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 부분은 책 전체 내용에서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공존으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책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서론 부분의 분량이 너무 많아 지루해지면서 책의 논점에 접근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의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족蛇足으로 여겨진다. 굳이 소개해야 한다면 명나라와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단하게 다루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점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다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진전쟁과 관련된 조선에서의 전투나 전쟁 상황에 대한 서술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서술이 되다 보니, 다른 구체적 연구성과와 대비되면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책에 담겨 있다.

책의 뒷부분에서 임진전쟁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조·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조 말엽, 광해군대, 인조대로 왕조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명에서 청으로 왕조의 교체라는 추이 속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정치외교사 측면에서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큰 방향에서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으로의 변화를 주목하는 편이 조선 후기 한중군사관계사의 시작과 연계되면서 좋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조선중기의 한중관계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 양국의 군사와 역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작성한 조선중기 한중관계사 연표는 임진전쟁 전후의 조선과 명의 군사외교의 중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한눈에 양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제시된 그림들은 전쟁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면서 대작을 읽는 과정에서 오는 지루함을 이기도록 해준다. 다만 그림의 크기가 작게 배치된 점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제1장, 5장만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각 장의 앞쪽에 간략하게 적혀 있다. 사실 분량이 많은 내용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이런 작은 배려가 모든 장의 앞에 서술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제4장 임진왜란과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는 장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장을 나누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아무쪼록 비평자는 저자의 다음 연구성과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와서 저자 자신의 바람일 조선시대 전체에 대한 한중 군사관계사 연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한중 관계가 요청되고 있기에, 그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